

갑상선종의 원인과 치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일반외과

朴 吉 秀

= Abstract =

Goiter, Etiology and Treatment

Kilsoo Park, M.D.

Department of General Surgery,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author presented a paper titled "Autohemotherapy of Goiter" at the 12 th Annual Meeting of Korean Surgical Society on October 8, 1960, and suggested that goiter was an allergic disease.

And the author reported the results of the statistical observation for 337 cases of goiter on the J.K.M. A. on July in 1966 and for 1,000 cases on June in 1975.

The author reports the successvive experiences for autohemotherapy.

- 1) Simple goiter and toxic goiter, except adenoma, cancer and adenomatous goiter.
- 2) Chronic nephritis.
- 3) Rheumatic fever.
- 4) Gout
- 5) Ulcerative colitis
- 6) Herpes zoster.
- 7) Ance vulgaris.
- 8) Idiopathic thrombocytopenic purpura.
- 9) Tendovaginitis.
- 10) Chloasma, melanin pigmentation.
- 11) Atopic dermatitis.
- 12) Scleroderma.

These diseases could be cured by autohemotherapy.

서 언

갑상선종의 원인은 불명하였다. 원인론에는 iodine 결핍론이 지배적이었으나, 이것이 진짜 원인일 수는 없다. iodine 을 투여하면 증상이 호전하기는 하나, 병이 낫지는 않는다. 그외에도 원인에 관해서 여러가지 학설이 있었다.

치료법에도 전에는 신통한 것이 없었고 toxic goiter로서 exophthalmus 가 심한 환자는 keratitis 가 일어

나서 안구가 파열되면 안구내용이 유출하여서 설명하는 예도 있었다. 또 약으로 치료하여서 갑상선종은 없어져도 exophthalmus 는 치유되지 않는다. 수술을 하여도 exophthalmus 는 치유되지 않고 갑상선종도 재발을 한다. 요사이는 좋은 약이 있어서 simple goiter 는 잘 치유되나, toxic goitier 는 잘 안낫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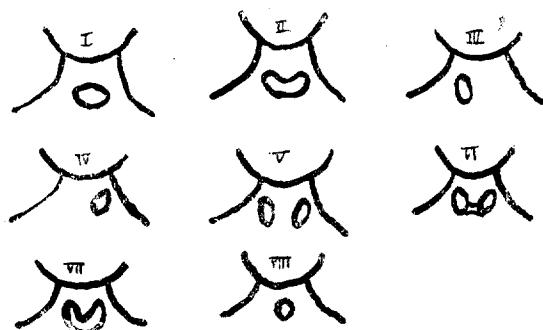
분 류

Classification by clinical diagnosis.

1. Simple goiter	639(63.9%)
Diffuse simple goiter	180(18.0%)
Nodular simple goiter	459(45.9%)
2. Toxic goiter	244(24.4%)
Diffuse toxic goiter	81(8.1%)
Nodular toxic goiter	163(16.3%)
3. Tumor	109(10.9%)
malignant tumor	76(7.6%)
Benign tumor	33(3.3%)
4. Acute thyroiditis	5(0.5%)
5. Chronic thyroiditis	0(0%)
6. Others	3(0.3%)
Thyroglossal duct cyst	3(0.3%)
	1.0000(100%)

nodular simple goiter 가 45.9%로 제일 많으나,
거의 절반이 tumor 이다.

Types of goiter



Type I and Type II.

Diffuse goiter이며, 촉진상 경계부가 확실치가 않다.

Type III.

우측에 생긴 nodular goiter이며, 촉진상 경계부가 명확하다.

Type IV.

좌측에 생긴 nodular goiter이며, 촉진상 경계부가 명확하다.

Type V.

좌우양측에 생긴 nodular goiter이며, 촉진상 경계부가 명확하다.

Type VI.

좌우양측에 nodular goiter 가 있고 중앙의 isthmus에 약간 연결이 있는 것.

Type VII.

nodular goiter 가 horseshoe처럼 U자형으로 되어

있다

Type VII.

Isthmus에 생긴 것

Type I과 Type II는 diffuse goiter이며, simple goiter와 toxic goiter가 있고 이러한 diffuse goiter에는 tumor도 없고 cystic degeneration도 없으며, adenomatous goiter도 없다. 전부가 자가혈액요법으로 치유된다.

Toxic goiter의 Exophthalmus도 물론 치유된다.

Type III에서 Type VII까지의 다섯개형은 거의 절반인 tumor이며, cystic degeneration도 있다⁸⁾. cystic goiter의 내용을 주사기로 흡인해보면, brownish fluid 혹은 소수에 있어서 greenish fluid가 나온다. 내용을 전부 흡인해내고 촉진해서 아무것도 촉진되지 않는 것은 autohemotherapy로 치유되나, 촉진상 nodular한 것이 만져지는 것은 예외없이 tumor이다. 즉, adenoma나 cancer이다.

Type VII.

Isthmus에 생긴 goiter는 예외없이 전부가 cancer이었다. 즉시 수술을 해야한다.

원 인

Tumor를 제외한 갑상선종은 원인으로서 알레지성 체질에 생기는 알레지성 질환이다. 저자는 1960년 10월 8일에 제12회 대한의학협회 학술대회에서 simple goiter, toxic goiter가 모두 알레지성 질환이라고 발표하였다⁹⁾.

갑상선종 환자의 혈액의 ASO-titer가 높은 환자가 많다. ASO-titer가 절대적인 조건은 안되지마는 참고적인 조건은 된다.

hemolytic streptococcus의 감염이 일어나면 streptolysin-o라는 독소와 streptolysin-s라는 독소가 생기는데 streptolysin-s는 무방하나, streptolysin-o에 대해서는 antibody가 생긴다. 이 anti-streptolysin-o가 자기 몸에 해를 끼친다. hemolytic streptococcus의 침입구는 주로 편도선이다. 즉 tonsillitis를 앓고 여려가지 질환에 걸리게 된다. 즉, tonsillitis를 앓고서 생기는 질환으로는 goiter, nephritis, rheumatic fever, tendovaginitis, scarlet fever 등이 있다.

치료

알레지성 질환에 대해서 autoserotherapy와 auto-